

BEYOND 동아!

학과 · 대학을 넘어 (Boundaryless)

대학시절을 넘어 (Entire Life)

한계를 넘어 (Y-Why-not)

강의실을 넘어 (On&off)

규제를 넘어 (New Ground)

타움을 넘어 (Design By Self)



승학캠퍼스 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구덕캠퍼스 49201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동대신동 3가)

부민캠퍼스 49236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부민동 2가)

www.donga.ac.kr

블로그 blog.naver.com/donga_pr_bot

페이스북 facebook.com/dongauniv

인스타그램 instagram.com/donga_univ

유튜브 youtube.com/c/dongauniversity1946

DONG-A UNIVERSITY since 1946

동아는 지금

115번째 소식지



Dong-A University Newsletter Vol. 115

동아는 지금

동아대학

Issue Focus 학기 주요 소식
Hot News 주요 행사 · 인물 동정
Dong-A People 동아인 인터뷰
Happy Donation 발전기금 소식
특별기획 4년의 향해



BEYOND 동아, 더 높은 곳으로 웅비하다

미래 100년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의 로비 '비욘드 라운지(Beyond Lounge)'는 형형색색의 아트월과 아기자기한 테이블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며, 한계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웅비하려는 동아인의 도전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다.

동아는 지금 제호 소개

동아대학교가 설립되기 10년 전 1937년 프랑스는 아르데코(art deco)기를 맞고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서체로 인정받은 「페노(Peignot)」는 1937년 파리 국제 박람회의 공식 서체로 지정된 오랜 역사의 서체로, 일정한 굵기 대신 획의 차이가 분명한 휴머니스트 산세리프에 가까운 서체이다.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진 페노 서체의 특징을 한글에 접목해 「동아는 지금」의 오리지널 제호를 개발했다. 동아대학교의 오랜 역사를 담으면서도 현대적인 세련미를 녹여냈다. (제작 :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김재홍)

동아대학교 소식지(통권 제115호)

발행일 2020년 9월
 발행인 이해우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www.donga.ac.kr / fund.donga.ac.kr
 디자인 효민디앤피 051)807-5100

당신의 역사를 만드는 동아대학교, 115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Issue Focus	04 미래 100년을 향한 드높은 도약, 제16대 이해우 총장 취임	08 뉴 노멀 시대의 동아대, 가상대학 시스템을 선도하다
Hot News	12 2021학년도부터 대대적 학제개편 단행	17 석당박물관 지도·문건 문화재 지정
	13 4단계 'BK(두뇌한국)21' 5개 사업단 예비 선정	18 장관 표창 수상 및 국가 기구 위원 위촉
	14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다양한 사업 선정	19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 게재, 학술상 수상
	15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역대 최대 금액 선정	20 학과 차원 다양한 사업 선정
	1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개최	21 LINC+사업단, 다양한 협력 추진
Dong-A People	22 앵커에서 검사로, 이유 있는 변신_수원지검 신수민 동문	24 AI 농업으로 꿈꾸는 더 나은 세상_생명자원산업학과 서현권 교수
	26 '비대면'의 대학 첫 학기, 슬기롭게 '대면'하다_20학번 새내기들	
Happy Donation	28 발전기금 기부현황	40 '후원의 집' 소개
	38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소개	41 기부 및 납부 방법 안내
특별기획	42 변화와 혁신의 바다를 넘은 4년의 향해_한석정 총장 이임	





▲ 간소하게 진행된 '작은 취임식'



▲ 정취위 이사장으로부터 교기를 받은 모습



▲ 학위복을 입는 취임식 관행을 깬 이 총장

100 years
미래를 향한 비범한 노약
제16대 이해우 총장 취임

동아대학교 제16대 이해우 총장이 취임했다. 이 총장은 지난 4월 27일 학교법인 동아학숙(이사장 정취위) 이사회에서 제16대 총장으로 선출됐다. 이 총장은 지난 8월 3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총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약속한다”고 말했다.

‘작고 낮은 취임식’ 눈길

총장 취임식은 코로나19 사태와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이 총장의 뜻에 따라 ‘작은 취임식’으로 열렸다. 동아대 교무위원 등을 비롯한 교내 구성원과 정취위 동아학숙 이사장, 신정택 총동문회장, 이상윤·최재룡·심봉근 전 동아대 총장, 이 총장의 가족 및 은사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 간소하게 진행됐다. 특히 이 총장은 이날 학위복을 입는 취임식 관행을 과감히 깨고 평상복(양복)을 입는 ‘낮은 취임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학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 △효율적인 대학 운영 체계 마련 △산학협력기반 혁신 △이공계 육성 및 인문사회 분야 연계·융합전공 강화 △전략적 국제화 추진 및 역량 강화 △대학 재정 건전성 향상 등 포부를 밝혔다.

소통과 화합, 혁신 강조

이 총장은 “대학 운영에는 구성원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의사결정을 하겠다. 누구든지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판이나 반대 의견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으로 각 계열 및 학과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해 단계별로 학제를 개편하고, 인문사회 분야 연계 및 융합전공을 적극 도입, 다학제 간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행정조직에도 전문 직제를 확대하는 등 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중대형 국책사업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대형 과제를 유치하고, 총장 직속 ‘이공계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산학협력기반을 혁신할 것을 역설했다.



▲ 이해우 총장과 신임 교무위원들

‘당신의 역사를 만드는 동아대학교’

이 총장은 “교수가 한번 머리를 숙이면 학생의 인생이 바뀐다. 총장부터 솔선수범해 재학생과 졸업생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의 역사를 만드는 동아대학교(Dong-A, Where We Make Your History)’란 슬로건을 앞세워 차별화된 동아정신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학생을 비롯한 동아의 모든 구성원이 동아인만의 차별화된 자긍심과 애교심을 갖고 글로벌 정신과 봉사정신도 고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펼쳐 발전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대학 자체 수익사업을 활성화해 다양한 ‘동아 브랜드’를 개발, 연구실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시장까지 진출하는 ‘Lab to Market Platform’을 구축할 뜻도 함께 밝혔다.

“교수가
한번 머리를 숙이면
학생의
인생이 바뀐다.”



- 경주 문화고
- 동아대 금속공학과(학·석사)
- 부산대 조선공학과(박사)
- 삼성중공업 연구소 책임연구원(1992~2004)
- 동아대 신소재공학과 교수(2007~), 학생·취업지원처장(2014~2015), 교무처장(2015~2016)
- 주요 수상 : 대한조선학회 논문상(2004), 대한용접학회 기술상(2006), 과학기술 진흥유공자 대통령 표창(2008), 동아대 석당학술상(2011), 동아대 자연공학계열 최우수 강의교수(2014), 부산과학기술상(2015)

취임사

자랑스러운 23만 동아 가족 여러분, 정취위 이사장님을 비롯한 법인 이사님, 신정택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 그리고 취임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강 이남의 제일 사학이란 자부심을 지닌 우리 동아대학교의 제16대 총장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동아대학교는 1946년 개교 이후 대내외의 수많은 역경들을 이겨내고 명문 사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건학 80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향한 차원 높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여 인류 삶의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대학의 교육방식과 교육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아 가족 여러분! 저는 4년의 임기 동안 우리 대학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몇 가지 큰 과제를 완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대학 운영에는 구성원들과의 진심 어린 소통이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비판이나 반대 의견에도 진지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우리 대학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학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을 통해 각 계열 및 학과별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단계별로 학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인문사회 분야에는 연계 및 융합 전공을 적극 도입하여 다학제 간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전문 직제를 크게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의 산학협력기반을 더욱 새롭게 혁신하고자 합니다. 산학협력단을 활성화하고 ‘중대형 국책사업 전략기획팀’을 만들어 대형 과제를 유지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학협력단과 창업지원단, 그리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취업 관련하여 교수가 한번 머리를 숙이면 학생의 인생이 바뀐다. 총장인 제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교직원 모두 저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넷째, 이공계 교육이 크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2020년 신입생 정원 4,058명 중 이공계 비율은 42%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외형에 걸맞지 않게 입학 성적이나 취업률 등 각종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향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총장 직속의 ‘이공계 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단기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에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대학의 국제화를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Dynamic Dong-A Inbound’라는 슬로건으로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 프로그램과 융합 교육 과정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여 우리 동아대만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대학 발전의 가장 근본적 토대는 무엇보다도 재정 문제 해결입니다.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통한 발전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발전 기금 모금에만 머물지 않고 대학 자체의 수익사업을 활성화해 다양한 ‘동아 브랜드’를 개발하겠습니다. 연구실에서 이루어진 기술이 시장까지 진출하는 ‘Lab to Market Platform’을 구축하여 그 수익이 대학 재정에 하나의 큰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아 가족 여러분! 우리 대학은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아래 자유·정의·진리를 교시로 하여 석당 선생님의 동좌문도(同坐問道)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역사를 만드는 동아대학교(Dong-A, Where We Make Your History)’란 슬로건을 앞세워 차별화된 동아정신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을 비롯한 동아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아인만의 차별화된 자긍심과 애교심을 가지고 나아가 글로벌 정신과 봉사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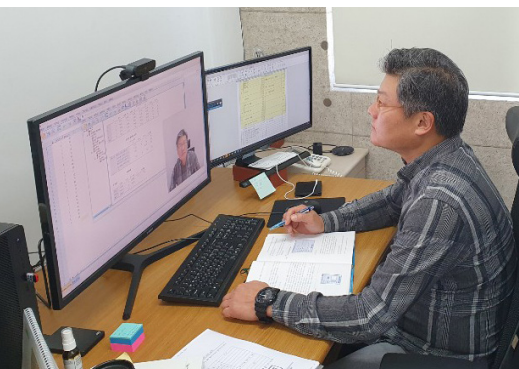
우리 대학의 발전 구상은 총장인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아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여러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다면 명문사학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동아인들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총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3일
동아대학교 제16대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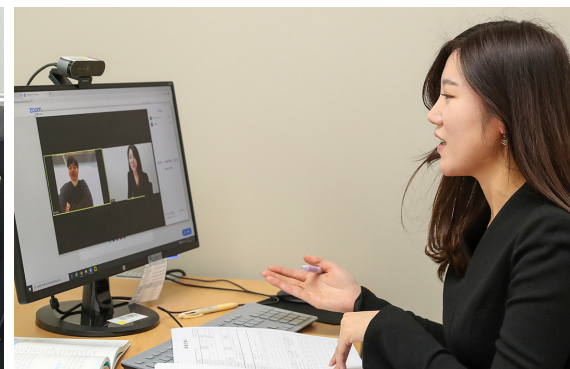
이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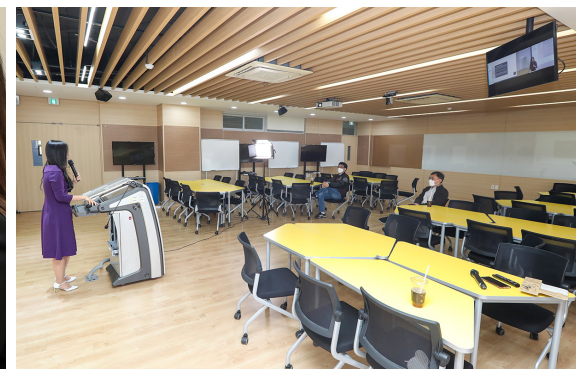
▲ 화상 수업 시스템으로 강의를 하는 모습



▲ 동영상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습



▲ 진료개발센터의 비대면 진료 상담 프로그램



▲ 코칭 수업 '거대한 전환' 강의 녹화 모습

가상대학 시스템을 선도하다 뉴노멀 시대의 동아대

동아대학교는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퇴치 노력에 동참하고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모든 수업을 가상대학(LMS)과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재택수업(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는 동아의 선견지명과 학교 구성원들의 열의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뉴 노멀(New Normal)' 시대를 선도한 혁신 사례로 평가받았다.

완벽한 비대면 수업의 포문을 열다

동아대는 지난 2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1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 강의를 비대면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했다. 이는 동아대가 지난 2018년부터 미래의 교육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e-러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기에 가능했다. e-러닝 고도화에는 가상대학 구축, K-MOOC 강좌 개발, e-러닝 교과목 개발, 스마트 강의실 구축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 중 가상대학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에 완벽한 비대면 강의를 가능하게 만든 빛나는 성과로 평가받았다.

개강 1주 차부터 동영상 수업을 안정적으로 제공한 대학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데, 동아대는 3,000개가 넘는 교과목과 2만 명이 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한 학기에 운영한 모든 강좌의 동영상 자료 저장 공간, 동영상 시청을 위한 클라우드 용량 등도 미리 확보해 2020학년도 1학기 전 과목 온라인 수업 운영에 선제 대응할 수 있었다.

동아가 구축한 새로운 가상대학(LMS)

특히 이번에 동아대가 새로 구축한 가상대학(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은 하버드대와 스탠포드대, 예일대, 브라운대 등 북미 대학이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글로벌 표준 'Canvas' 오픈소스 시스템에 한국의 교육을 융합한 통합 솔루션이다.

'가상대학' 시스템은 3,000명이 동시 접속 가능하며, 1인 강의 녹화 도구 '닥줌(DocZoom)'과 '에버렉(EVERLEC)', 파워포인트 녹음, 스마트폰 녹화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고 실시간 수업 기능도 추가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 거기에 웹 2.0 기술을 적용해 역진행 수업, 혼합형 학습, 문제 중심 학습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시간 화상 수업 시스템인 'ZOOM'은 PC와 스마트폰, 태블릿 PC에서 모두 접속할 수 있고 한 수업에 최대 300명이 동시 수강할 수 있다. 필기 중인 화면의 공유, 실시간 토론이 가능하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으로 복습도 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동아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개강과 동시에 20개의 서버를 가동해 영상자료의 클라우드 업로딩 속도를 높이고 학생 접속 서버도 12개로 증설해 2만 명이 동시접속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전국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로 여타 대학들 사이에서 비대면 재택수업 완성형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덕분에 1학기 내내 학생들은 가상대학을 통해 비대면 재택수업을 원활히 받을 수 있었다.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만든다

교수들은 학교의 비대면 재택 수업 방침을 교수법 개발의 계

기로 받아들였다. 평소 온라인 강의에 익숙했던 교수도 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교수가 대부분이었다. 교수들은 정성과 열의를 다했고 그 결과 오프라인 강의에 버금가는 학생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가상대학 강의에 익숙한 교수들은 주변 교수들에게 강의 동영상 제작 방법을 공유하는 등 솔선수범을 보이기도 했다. 체육학과 우진희 교수는 강의 동영상 업로드와 출석 체크 방법 등을 '다즙' 동영상으로 제작, 동료 교수들과 공유했다. 우 교수는 학생들의 발표 동영상을 제출받아 세심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의 온라인 수업으로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중국·일본학부 이길원 교수는 회화가 필수인 수업에서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화상수업을 병행했다. 화학공학과 김종식 교수도 이론 동영상 수업과 실시간 화상수업을 병행했는데,

판서형 패드 등을 활용해 강의의 질을 높였다. 신소재물리학과 권민철 교수는 '물리학실험' 과목에서 다양한 각도로 실험 장면을 촬영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

경영학과 서주환 교수는 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비로 마이크를 구매하고 별도의 자막이나 편집 작업도 거치는 등 공을 들였다.

이처럼 온라인 강의에 열의를 보인 교수들은 "온라인 강의를 시도하게 된 것은 다양한 교수법 개발에 좋은 기회"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학생들도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만들고 지식 극대화를 위해 적극 활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시 진화하는 동아대

동아대는 취업지원실과 진로개발센터, 교수학습개발센터, 국제교류과, 도서관 등에서 진행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다시 한 번 앞서가는 대학임을 증명했다.

학생·취업지원처 취업지원실은 올해 초부터 학생들의 취업 지원 업무에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상담 일시를 예약해 1인당 30분 이상 카카오톡 채팅으로 취업상담을 실시했다. 자기소개서를 첨삭 지도하는 입사서류 클리닉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가상대학 내 공기업 NCS 및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대비 강의를 개설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 최초의 온라인 취·창업 멘토링 홈페이지 '다잇다'를 통한 선후배 간 취업 상담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혁신원 진로개발센터는 코로나19로 취업 준비에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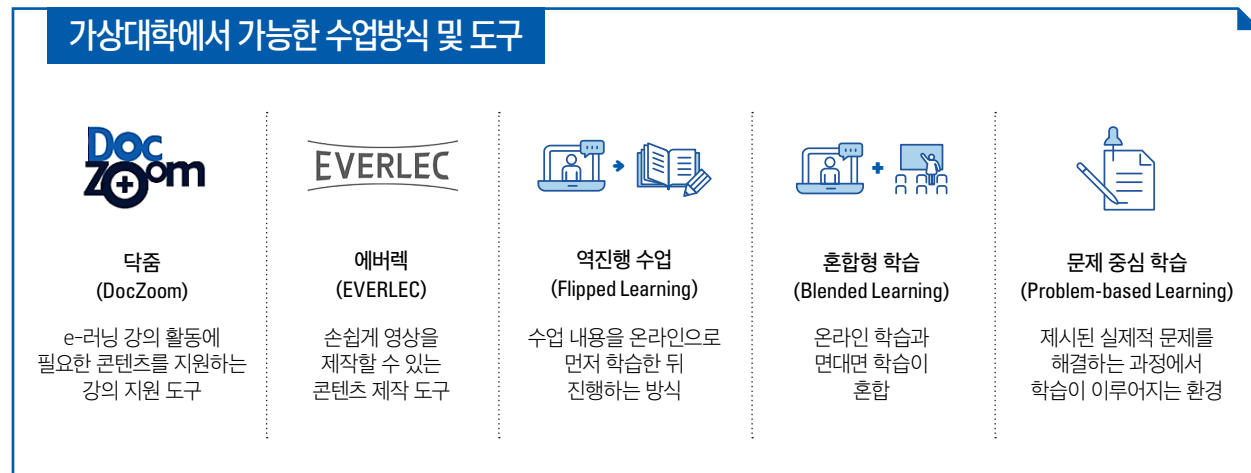
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진로 프로그램을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해 온라인 화상 상담, 전화 상담, 카카오톡 채팅, 홈페이지를 통한 계열별 온라인 상담 등을 실시했다.

'신입생 및 재학생 진로 특강'은 단과대학별 '에버렉(EVERLEC)'으로 강의 동영상을 제작, 가상대학에 업로드했으며 '진로 동아리' 활동은 'ZOOM'으로 오리엔테이션과 간담회 등을 진행해 학생들의 실시간 소통과 참여를 유도했다.

교육혁신원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학생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 신청이 늘어나고 대면상담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ZOOM'으로 실시간 진로상담을 받은 한 학생은 "온라인으로 상담하니 이동 시간도 절약되고 부담 없이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로 상담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가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동아대 도서관은 비대면 재택수업 기간 학생들의 강의 수강 지원을 위한 도서 대출 서비스와 논문·리포트 작성 지원을 위한 실시간 온라인 정보 활용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동아대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무후무한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를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학교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대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곧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아대가 또 어떤 혁신의 청사진을 그려나갈지 사뭇 기대된다.



▲ 완성도 높은 동영상을 편집해 강의에 활용하는 모습



▲ ZOOM을 활용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



▲ 실험 장면을 보여준 '화학 및 실험' 강의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취업 상담

Hot News

1 미래융합인재 양성·인문사회 경쟁력 강화
2021학년도부터 대대적 학제개편 단행

동아대학교는 미래융합인재 양성과 인문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학년도부터 대대적 학제개편을 단행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분야인 AI학과를 신설, 기존 컴퓨터공학과와 함께 '컴퓨터·AI공학부'로 독립시킨다.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원 증원과 학과 편입 등을 통해 ICT단과대학(가칭)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와 함께 기존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을 개편, 인문학과 지역학을 결합한 단과대학인 '국제대학'을 신설한다. 국제대학에는 '영미학과(전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중국학과(전 인문과학대학 중국어학과,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 '일본학과(전 중국·일본학부 일본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과'가 속하게 된다. 사회과학대학은 사회적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경찰·소방학과'를 신설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이 학과는 형법 및 형사정책 실무자를 겸임교수로 초빙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도 연계해 실무 중심 교과로 운영된다.

이 밖에 경영대학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합경영학과(외국인 유학생 영어트랙)'가 신설된다. 기초자연 분야를 다루는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와 신소재물리학과, 생명과학과는 각각 '정보수학과'·'반도체학과'·'바이오메디컬학과'로 교과과정 및 명칭을 전면 개편한다. 공과대학 토목공학과도 '건설시스템공학과'로 명칭을 바꾼다. 에너지·자원공학과와 환경공학과는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로 통합, '미래에너지공학'과 '환경안전' 전공 단위로 운영된다. 인문과학대학 사학과와 고고미술사학과를 '역사문화학부'로 통합, '사학전공'과 '고고미술사학전공'으로 운영하고,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던 금융학과는 경영대학으로 소속을 옮겨 기존 학문들과의 시너지를 유도한다.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단과대학 신설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국제대학	영미학과	
		중국어학과		중국학과	
	중국·일본학부	중국학전공		일본학과	
		일본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				
독립학부· 학과 신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컴퓨터·AI공학부	컴퓨터공학과	
		(신설)		AI학과	
	(신설)	사회과학대학	경찰·소방학과		
	(신설)	경영대학	융합경영학과		
학부 신설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인문과학대학	역사문화학부	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전공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공과대학	환경·에너지공학부	미래에너지공학전공
		환경공학과		환경안전전공	
학과 개편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자연과학대학	정보수학과	
		신소재물리학과		반도체학과	
		생명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단과대학 소속 변경	사회과학대학	금융학과	경영대학	금융학과	

▲ 2021학년도 동아대 학제개편 내용



▲ 송학캠퍼스 뉴턴의 사과나무 공원 조형물 '드므'

2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
4단계 'BK(두뇌한국)21' 5개 사업단 예비 선정

동아대의 3개 교육연구단과 2개 교육연구팀 등 모두 5개 사업단이 정부의 4단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예비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예비 선정된 사업비를 합치면 모두 135억여 원으로 40여 명의 교원과 100여 명의 대학원생 등 연구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4단계 BK21 사업은 3단계 BK21 플러스 사업 후속으로 앞으로 7년간 진행되며, 신산업 및 기초학문 분야 등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연구인력 양성사업이다. 동남권 사립대학 중 가장 많은 교육연구단이 예비 선정된 동아대는 참여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원 및 연구 분야를 집중 지원해 '특성화 강소 대학원(Hidden Champion)'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아대는 대학원 교육과정을 전문화하고 연구역량을 극대화하며 대학원 중심 연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연구혁신'을 꾀한다.

이번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ICT 융합 해양스마트시티 방재인력 양성 교육연구사업단(이정재 교수, ICT융합해양스마트시티공학과) △미래환경 생체방어 융합사업단(조완섭 교수, 건강과학과) △동남권 정착형 초정밀 화학소재 엔지니어 양성 교육연구단(이현상 교수, 화학공학과) 등이다. 교육연구팀은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스마트 거버넌스 교육연구팀(홍순구 교수, 경영정보학과) △글로벌 관광 SDGs 교육연구팀(최규환 교수, 관광경영학과)이다.

한편 동아대는 지난 2013년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이후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양성사업단'과 '차세대 스마트 전자소자 핵심기술 사업팀', '항만·물류 스마트 정보서비스 전문인력양성 사업팀' 등을 운영하며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양성해왔다.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

- 교육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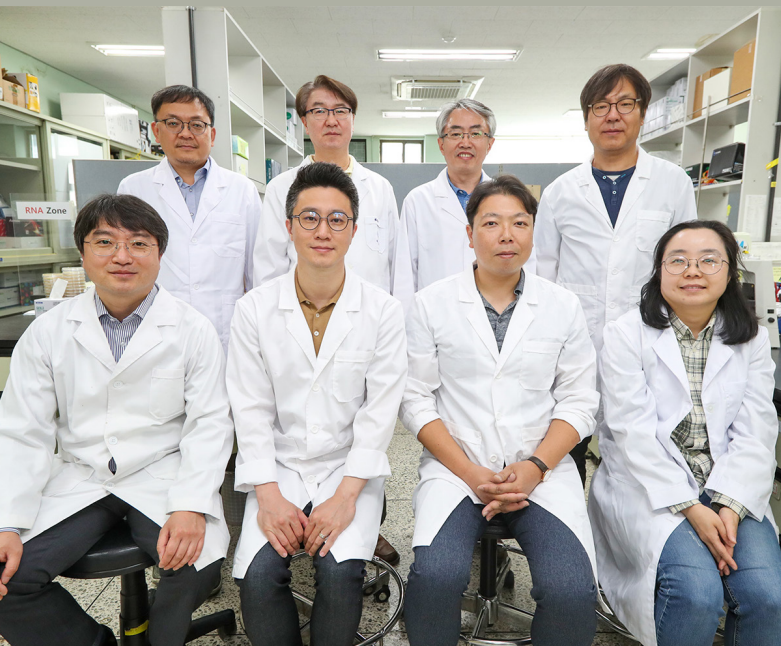
- 연구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도전적·장기적 연구 유도
- 연구 성과의 질적 평가를 80% 수준으로 확대, 별도의 연구 업적평가단 구성
- 융·복합형 연구 인력 양성 수요에 따라 '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

선정 결과

- 68개 대학 총 562개 교육연구단(팀) (386개 교육연구단, 176개 교육연구팀)이 예비 선정
- 미래인재양성사업: 197개 교육연구단 및 176개 교육연구팀 선정
- 혁신인재양성사업: 189개 교육연구단 선정

전망

- 연간 4,080억 원 예산 지원
- 1만 9,000여 명의 석·박사급 인력 양성
- 연구 장학금 및 인력 지원 기준 상향으로 학업에 집중



▲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된 농업생명과학연구소



▲ 창업지원단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 착수회 모습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전공체험 프로그램



▲ 신소재공학과 스틸 챌린지 수상 모습



▲ 식품영양학과 기능성 실버 디지털 전시 모습

3 정부 및 부산시 주관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다양한 사업 선정

동아대 각 기관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선정됐다. 농업생명과학연구소(소장 이선우)는 교육부의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수행 기관에 선정, 오는 2029년 5월까지 69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농업생명과학연구소는 농업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목표로 작물과 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연구에 특성화된 전문 연구기관이다. 이선우 교수는 "국제적인 연구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작물 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지원단(단장 김재일)은 '2020년 이노폴리스 캠퍼스 지정·육성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에 선정돼 2년간 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특구 내 대학을 선정해 대학의 아이디어와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동아대는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패션디자인학과는 부산시와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양성사업' 수행기관에 선정돼 '스마트테크 IT융합패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3년 연속 운영한다. 건강관리학과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의 '2020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주)인시스템이 주관하는 '모바일 기반 자가진단용 간이 인지장애 평가 플랫폼 개발'을 함께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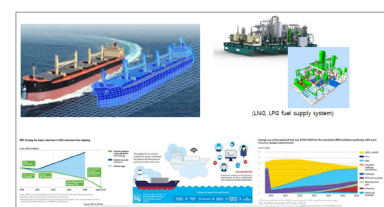
조선해양플랜트공학과는 '2020년 친환경·스마트선박 R&D 전문인력 양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 지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주관)에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 연구비 등을 지원받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양성사업



▲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



▲ 친환경 스마트선박 R&D 전문인력 양성사업

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1년 연속 선정, 역대 최대 금액 지원 받아

동아대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모두 16억 7,300만 원의 '역대 최대 금액'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비수도권 대학 중 가장 많은 금액이었던 지난해(14억 5,100만 원)보다도 2억여 원 많은 것으로 전국 대학 최상위권 규모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이 사업의 전신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지금까지 11년 연속 선정, 누적 지원금 117억 6,100만 원이란 쾌거를 올렸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정부 재정지원을 활용해 고교교육 여건을 교육과정에 충실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동아대는 올해 '전형 간소화'와 '공정성 강화', '홍보 전략' 등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1학년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낮춰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2022학년도 지역인재종합전형 신설(696명)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학생 등을 위한 '고른기회전형'을 대폭 확대한다. 또 학생부종합전형 블라인드(성명·출신고교·수험번호) 평가 확대와 세부 평가기준의 상세한 공개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강화하고 현직 고교 교사 등 외부인사를 전형 운영위원으로 위촉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상문 입학관리처장은 "지역 거점 사립대학으로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고교교육 내실화와 학생 및 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5 신소재공학과·식품영양학과 산업계관점 최우수 학과 2회 연속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산업계관점 대학 평가'에서 동아대 2개 학과가 산업분야별 최우수 학과로 선정됐다.

2019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신소재(금속·세라믹)와 식품, 미디어 등 3개 산업분야에서 62개 대학 88개 학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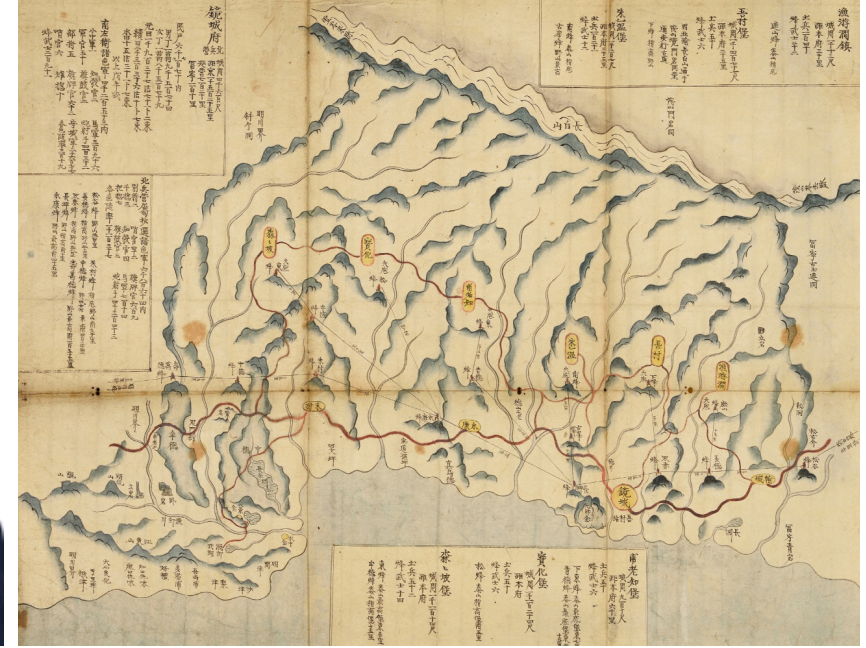
동아대 신소재공학과는 '신소재(금속·세라믹)' 분야에서, 식품영양학과는 '식품'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 학과로 뽑혔다.

이는 지난 2015년 평가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산업계관점 최우수 학과에 선정된 쾌거다.

신소재공학과는 '지속가능한 뿌리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 요구가 반영된 전공과목 개편과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LINC+사업단과 연계한 현장실습 진행 등의 사례가 특히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식품영양학과는 '고령사회 건강 100세 식생활 문화 선도인력 양성'을 목표로 산업체 소속 외부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과 전공수업 내실화,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왼쪽부터 김두관·김도읍·김미애·안병길·조경태·서병수 동문, 최인호 명예동문



▲ 관북여지도_3면 경성부(함경북도 경성)



▲ 대한민국임시정부 문건

6 동문 7명 당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 개최

동아대 총동문회(회장 신정택)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을 지난 5월 29일 개최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선 명예동문 1명을 포함, 모두 7명의 동문이 당선됐다. 당선된 동문은 김두관(정치외교학과 졸,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 김도읍(법학과 졸, 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 김미애(법학과 졸, 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구), 안병길(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졸, 미래통합당 부산 서구동구), 조경태(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47기, 미래통합당 부산 사하구), 서병수(54기, 미래통합당 부산진구갑), 최인호(명예동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의원 등이다.

축하연에는 김두관·김미애·서병수·최인호 등 국회의원 당선 동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동아대 총동문회 관계자, 학교 관계자, 학교법인 동아학숙 관계자, 동문 기업인,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당선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7 전국 대학 중 유일 6년 연속 K-Move 미국 해외취업사업 전 과정 '우수' 선정

동아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0 K-Move 미국 해외취업사업'에서 전 과정이 우수과정으로 선정돼 올해 3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 미국 해외취업 글로벌 전문가 양성 4개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2015년부터 6년 연속 모든 과정이 '우수과정'으로 선정된 대학은 동아대가 유일하다. 자체 개발한 해외 취업캠프 교육, 선배들의 실시간 멘토링 프로그램 '다이다', 8개 미국기업과 협약 체결을 통한 취업처 확보 등을 추진, '대학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실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아대는 모두 50명을 선발,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테크니션(14명)·물류 무역(12명)·비즈니스(12명)·디자인(12명)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다. 참가 학생들은 약 600시간 동안 영어, 직무교육을 받은 후 미국 뉴욕 및 캘리포니아 등 주요 도시에 소재한 대기업·현지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 K-Move 취업캠프

8 석당박물관 소장 관북여지도-대한민국임시정부 문건 문화재 지정

석당박물관 소장 유물이 국가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61호로 지정된 '관북여지도'는 조선시대 관북(關北) 지방인 함경도 마을과 군사적 요충지를 총 13면에 걸쳐 그린 1첩의 지도집이다. 이 지도집은 현존하는 북방 군현지도(郡縣地圖) 중 정밀도와 완성도가 뛰어나며 조선시대 지도 발달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석당박물관 관계자는 "지도 표현에서 봉수(烽燧) 사이의 연락 관계를 실선으로 직접 표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이는 다른 함경도 지도뿐 아니라 기타 지방지도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참신하고 새로운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또 "봉수 간의 거리를 수치로 제시해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별, 추조, 편지 및 소봉투' 1건, 5점이 국가등록문화재 제774-3호로 지정됐다. 해당 유물은 독립운동가 이교재(李敎載, 1887~1933)가 대한민국임시정부로부터 수령해온 문건들이다. 이들은 1931년 만주사변 발발 후 국제정세 대변동으로 독립운동에 호기가 왔다고 판단한 임시정부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운동 자금 조달을 어떻게 계획했는지와 그 실행방법을 추정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9 제9회 변호사시험 초시생 합격률·전체 합격자 수 모두 상승

동아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9기생의 제9회 변호사시험 '초시생 합격률'이 58.93%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변호사시험에선 졸업생까지 포함해 모두 58명(9기생 33명)이 합격, 지난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6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기록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3,316명 중 1,768명이 합격해 응시자 대비 53.32%의 합격률을 보였다. 동아대 로스쿨은 이번 변호사시험에서 검사 1명과 로 클럭(Law Clerk: 재판연구원) 1명, 군법무관 3명 등 관직에 진출하는 동문도 5명 배출하며 약진했다. 이로써 동아대 로스쿨은 개원 이래 모두 464명의 법조인을 배출하게 됐다.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제9회 변호사시험 결과에 만족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금씩 상승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생들과 합심해 빠른 시간 내에 정상궤도에 올라 전국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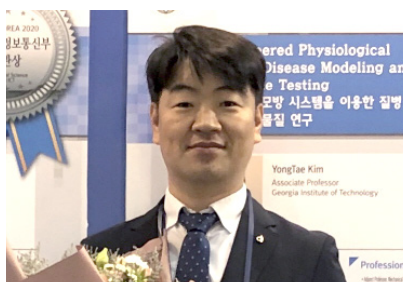
10 한성호·조완섭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동아대 의학과(가정의학교실) 한성호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그는 다수의 예방접종 관련 강의와 '우리동네 주치의' 캠페인을 통해 국가예방접종사업 홍보 및 참여에 이바지했고 지역 상급병원 최초로 '예방접종 클리닉'을 개설, 활성화하는 등 예방접종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의약생명공학과 조완섭 교수는 '제18회 국제나노기술 심포지엄 및 나노융합대전(나노코리아 2020)'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나노물질 및 제품의 특성, 성능, 안전, 표준 관련 풍부한 연구경험과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조 교수는 나노독성학 연구와 안전한 나노물질 개발 분야에 국가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조 교수 연구팀은 나노물질의 독성에 영향을 주는 물리화학적 특성인자 발굴에 관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한성호 교수



▲ 조완섭 교수

11 김기수 교수·박장식 교수·한장원 명예교수 등 국가 기구 위원 위촉

동아대 석당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김기수 건축학과 교수가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가 건축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건축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 등을 한다.

박장식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아세안연구소장)가 대통령 소속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위원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박 교수는 한국동남아학회장을 역임했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민간자문단 사회문화분과 위원과 아세안문화원 운영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공예가인 한장원 미술학과 명예교수는 문화재청의 제3대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2016년 출범한 문화재청 자문기구로 무형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이 밖에 이신욱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교수가 '개성공단 홍보 전문위원'(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공개 모집)과 '제22기 통일교육위원'(통일부)으로 위촉됐고, 신충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베트남 내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베트남국제상사조정센터(VICMC) 국제조정인으로 선정됐다.



▲ 김기수 교수



▲ 박장식 교수



▲ 한장원 명예교수

12 눈부신 연구 성과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 게재, 학술상 수상

동아대 교수들이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뛰어난 연구 성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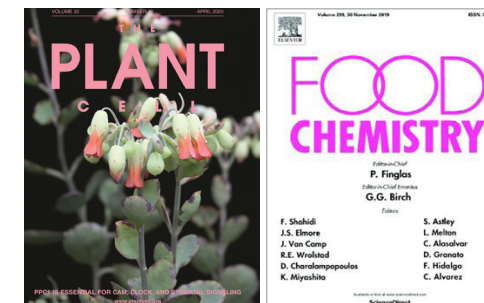
정호원 분자유전공학과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식물학 분야 JCR 상위 3%에 해당하는 학술지 'Plant Cell' 2020년 4월호에 게재됐다. 또, 생물학 연구정보센터(BRIC) '한국을 빛낸 사람들' 추천논문에도 선정돼 경경사를 맞았다. 이 논문은 정 교수팀과 김상현 명지대 교수팀의 공동연구 결과물로, NMD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양적 변화가 식물의 병저항성 유전자의 mRNA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식물의 병저항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작임을 처음으로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진환 생명자원산업학과 교수가 논문 2편을 영국 학술지 'Food Chemistry' 2020년 2월호, 7월호에 잇따라 게재했다. '엘스비어'에서 발행하는 'Food Chemistry'는 JCR(Journal Citation Reports) 식품과학 분야 상위 5% 내에 해당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다. 논문은 콩과 새싹밀의 생육에 따른 기능성물질 '이소플라본'과 '폴리코사놀'의 최적함량 시기를 최초로 규명, 이에 따른 생리활성 검증 및 물질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능성식품 등 관련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밝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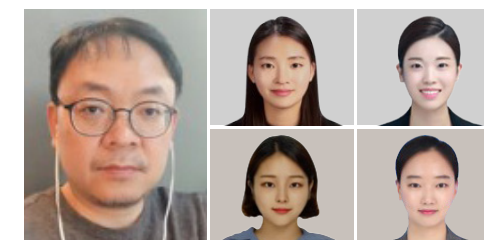
서현권 생명자원산업학과 교수가 소속된 '디지로그' 팀은 네덜란드 와게닝겐(Wageningen)대학교가 주최한 '제2회 세계농업AI대회'에서 최종 3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는 세계 농업선진국과 글로벌 기업 등이 참가해 첨단 농업기술을 겨루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21개 팀 200명이 참가했는데, 대부분 팀이 글로벌 IT기업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전폭적 지원을 받은 것과 달리 '디지로그'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민간 팀이 이룬 쾌거라 더 대단한 성과로 평가받는다. '농업로봇'을 비롯한 AI 전문가인 서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 팀 멤버를 직접 설득해 모아 팀을 운영한 주역이다.

응용생물공학과 최기혁 교수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사 공현기(동아대 응용생물공학과 학·석·박사) 동문이 포함된 '토마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팀이 '한광호 농업상'의 농업연구부문상을 받았다. '토마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팀은 토마토 재배 토양의 미생물 유전정보 구조·기능 분석으로 식물병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식물병리학 연구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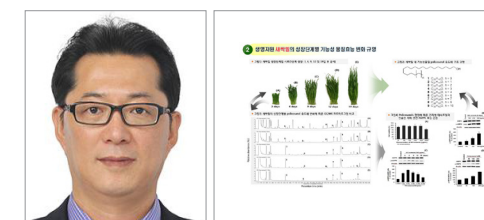
의예과(해부학교실) 신강재 교수는 갑상선 눈병증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진 '눈확 감압술' 국내 도입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수행,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수여하는 '제30회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 정호원 교수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 이진환 교수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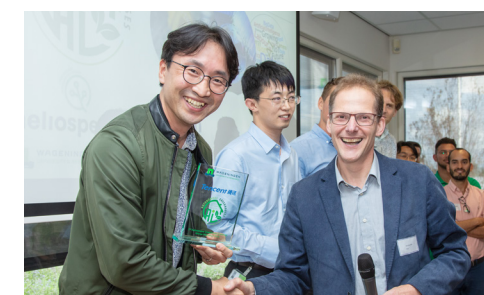


▲ 정호원 교수팀



▲ 이진환 교수

▲ 이진환 교수의 연구 내용



▲ 제2회 세계농업AI대회에서 수상한 서현권 교수



▲ 최기혁 교수(우)와 공현기 박사(좌) ▲ 신강재 교수



▲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3 학부생 및 대학원생 참여 학과 차원 다양한 사업 선정

동아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년 대학·지역사회 연계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1차 공모에 부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연계한 미디어 리터러시(다양한 매체를 이해하고 메시지에 접근해 분석·평가·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오는 11월까지 '슬기로운 디지털 미디어 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부산 지역 소외계층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지영 대학원생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2020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정 대학원생은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지원 받아 '나노다이아몬드의 단백질 코로나 현상을 이



▲ 정지영 건강과학과 박사과정생

용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나노소재 활용 바이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생명공학과 학부생 팀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20년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URP)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조종현 교수와 항바이러스 신약개발 실험실 소속 학부생 5명(최은량·남예은·양지현·유선호·서은우)으로 이뤄진 연구팀은 이번 사업에서 '뎅기 바이러스 유래 질병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에 참여하는 학부생들은 "학부생 신분으로 연구 참여 기회를 얻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며 "실험계획 수립과 자료 조사, 실험 진행 및 결과 도출 과정을 통해 신약 개발 과정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한국과학창의재단 URP 지원사업에 선정된 의약생명공학과



▲ 링크플러스사업단 전경

14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LINC+사업단, 동남권 대학들과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 추진

동아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단장 김점수)이 부산을 비롯한 동남권 대학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동아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은 지난 5월 29일 경남 통영 동원리조트 동원홀에서 열린 '동남권 LINC+사업단 협의회'에서 'K-MOOC 창업강좌 공동개발 및 창업학점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K-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공개강좌 서비스다. 동남권 LINC+사업단 협의회는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란 슬로건 아래 LINC+사업 연계 활성화 및 사업영역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권 6개 대학(동아대·동명대·동서대·동의대·부경대·한국해양대) LINC+ 연합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대면 창업캠프' 등 온라인 창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상

호 협력기로 뜻을 모았다. 또, '온라인 기반의 산업체 단기 강좌(I-Korea 4.0)'를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I-Korea 4.0'은 코로나19로 대면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기반의 산업체 세미나 및 포럼을 공동으로 기획,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부산권 6개 대학 LINC+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시대 온택트 기반 AI 및 비대면 취업컨설팅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개최, AI를 접목한 비대면 면접교육 프로그램과 모델 공동 개발 및 공유로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 이들은 각 대학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1단계 'AI 비대면 기반 모의면접', 2단계 '비대면 실전면접 프로그램'을 실시, 각 대학 특성과 재학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K-MOOC 창업강좌 공동 개발 및 창업학점교류 협약 체결



▲ 실시간 온라인 창업교육을 위한 협약 체결



앵커에서 검사로, 이유 있는 변신

수원지방검찰청 신수민 동문

새로운 직업으로의 변화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2월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수민 검사는 전직 앵커였다. 앵커 출신 검사라는 흔치 않은 이력은 단연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자신의 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불안감을 지혜롭게 이겨냈다는 것이다.

‘전달자’가 아닌 ‘주체’ 위한 결단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신 검사는 서울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 이후 ‘연합뉴스TV’에 입사해 2년 동안 뉴스 현장과 스튜디오를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했다. 그러던 중 새로운 결심이 서 2017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신 검사는 앵커에서 검사로 변신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언론사 재직 당시 수많은 사건·사고를 접하며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곳을 조명할 수 있다는 일이 참 보람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장 몇 개로 짧게 설명되는 범죄 사건이 누군가에게 관심거리에 불과하지만, 피해자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것을 알게 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는 사건에서 한 발짝 떨어진 전달자 역할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주체가 되고 싶다는 결심으로 저를 이끌었죠.”

부산에 연고가 없는 신 검사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한 건 특성화 분야 때문이었다. 국제상거래법을 특성화해 국제적 감각을 겸비한 법률가를 양성하고 졸업한 선배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에 이끌렸다. 그리고 부산에 사는 친척이 있어 환경이 낯설지 않았고 평소 부산에 호감을 갖고 있던 점도 한몫했다.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탐마

입학과 졸업이 모두 쉽지 않은 로스쿨 체제에서 검사가 되기는 더욱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과목도 상당히 포함돼 있어 학습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모습

검사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 과정 속에서 별도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신 검사는 로스쿨 2학년 2학기 때 ‘검찰실무’를 수강했고, 2학년 겨울방학에는 ‘검찰심화실무수습’ 과정에 참여해 기록을 평가하고 실제 현장 경험을 쌓았다. 3학년 1학기에는 ‘검찰실무2’를 수강한 후 마지막 학기에 본시험과 면접에 응시했다. 1년여의 임용 준비 과정 속에서 공부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는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초조한 마음이 들 때 스트레스가 컸다고 한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는 것이 로스쿨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같다고 신 검사는 강조했다. 또 “체력 관리도 중요하다”며 “양질의 식사와 꾸준한 운동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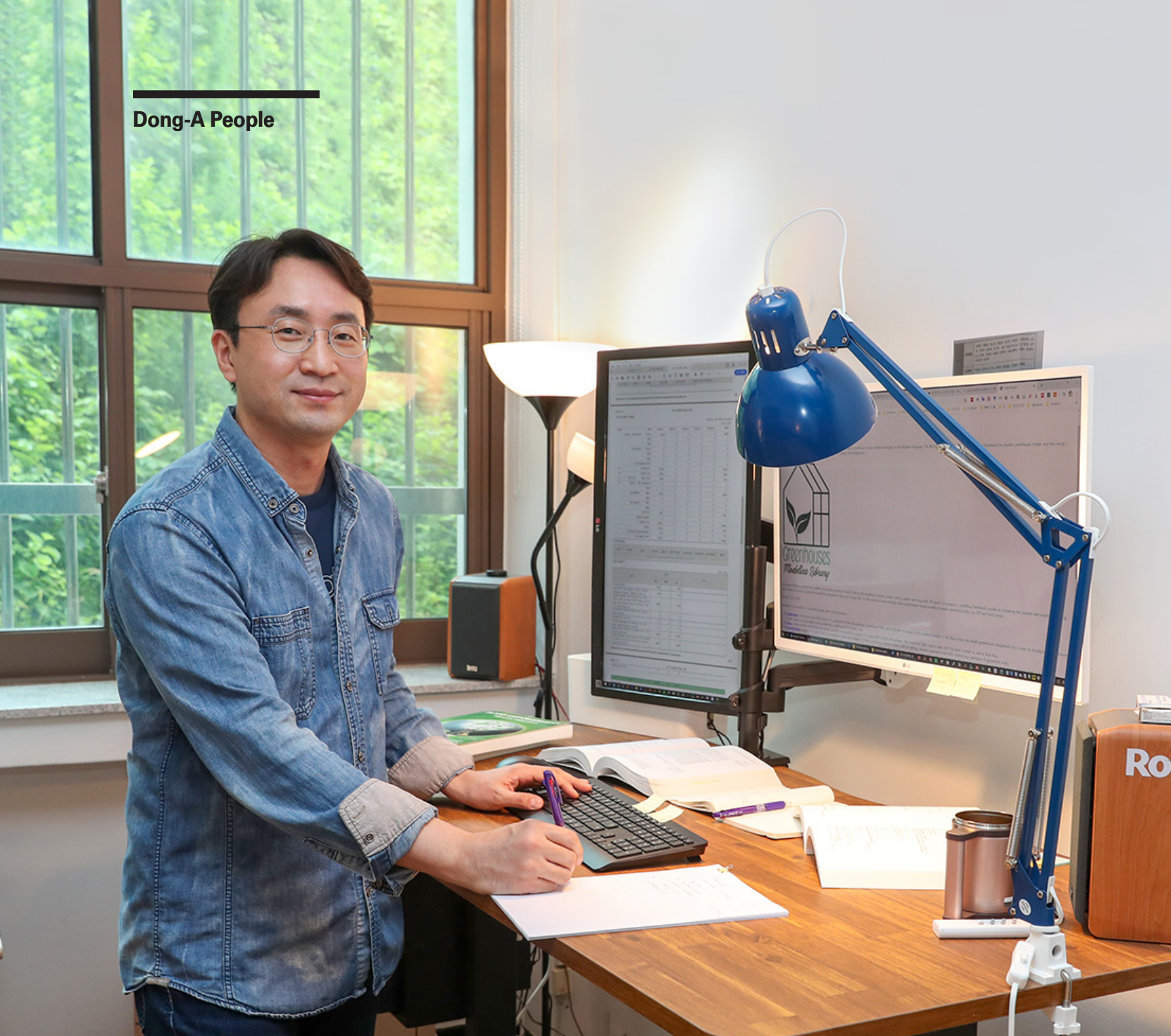
지난 5월 11일자로 임관한 신 검사는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실무 연수를 받고 있다. 총 9개월의 연수가 끝나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현장 업무를 본격 수행하게 된다. 어떤 검사가 되고 싶은지 각오를 물었다.

“검사로서 내리는 결정이 수많은 이들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만큼 매 순간 사명감을 가지고 신중하게 임하고 싶습니다. 사건 속 모든 인생을 항상 진심으로 대하고 스스로 내린 결정에 부끄럽지 않은 검사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앵커 시절의 모습 ▶

- 강원도 원주 출생
- 2014.02. 한국외대 독일어과 졸업
- 2015~16. 연합뉴스TV 앵커 활동
- 2017.03.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 2020.02.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20.05. 검사 임용, 수원지검 발령



AI 농업으로 꿈꾸는 더 나은 세상

생명자원산업학과 서현권 교수

서현권 생명자원산업학과 교수가 팀장으로 속한 '디지털로그' 팀이 세계농업AI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농업 강국인 네덜란드와 많은 인원이 참가한 중국이 1·2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우리나라 농업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성과다.

인간 농부와 AI 농부의 대결

네덜란드 와게닝겐(Wageningen) 대학교가 주최한 '제2회 세계농업AI대회' 3위 입상 소식을 전해들었을 때 서 교수는 믿기지 않았다. 대회 본선 진출이 초기 목표였던 터라 이는 큰 감동이었고, 팀원들과 고생했던 1년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서울대 농공학 석사, 네덜란드 와게닝겐대에서 농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서 교수는 국내 AI 농업 분야의 많지 않은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와게닝겐대에서 인연을 맺은 민승규 한경대 석좌교수는 '제2회 세계농업AI대회' 공고를 본 직후 참가를 제안했고 서 교수는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팀원 구성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주변 추천을 받아 전문가라고 하면 무조건 찾아가 설득했다. 두 달이 넘는 각고의 노력 끝에 AI, 통신, 농업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팀을 꾸렸다. 팀원들은 예선을 치르기에 앞서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을 찾았다. 이 前 장관은 이들을 따뜻하게 격려하며 본인의 저서명이기도 한 '디지털로그(Digilog: 디지털에 아날로그를 융합)'라는 팀명을 직접 지어줬다.

지난해 9월 열린 예선전에는 전 세계 21개 팀, 200여 명이 참가했다. 예선전은 가상 스마트팜 운영 대결이었는데 이는 팀원들이 컴퓨터로 접속한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형태로 겨루는 방식이었다. 디지털로그 팀은 예선전을 2위로 가볍게 통과했다. 본선은 총 5개 팀이 원격 컨트롤러로 습도, 햇빛, 비료 양 등을 조절해 99㎡의 자율온실에서 방울토마토를 실제 재배하는 형태로 치러졌다. 재배가 시작된 후 10일

마다 수확을 했는데 수확량을 차츰 늘려가는 것이 평가의 중요 요소였다. 본선에는 세계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간 농부팀도 참가했다.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가한 유일한 팀이었던 디지털로그는 기계 학습, 모방 학습 등 다양한 AI 접근법을 시도했고 AI 농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제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이들 팀이 생산한 방울토마토는 모양, 당도 등 품질 부문에서 전체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 농업 미래 인재 양성과 연구에 매진

서 교수는 올해 3월부터 동아대 생명자원산업학과에서 강의와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 농업 벤처기업인 '에이베타크놀로지'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서 교수는 "AI대회에서 입상해 기쁘기는 하지만 지난해 2위를 했던 '인간' 농부팀이 올해는 본선 최하위를 기록한 점을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농업 기술이 더 높은 효율성이 있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현대 농업의 발전방향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앞으로의 포부도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AI나 스마트농업 전문가가 많이 부족합니다. 농업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첨단 산업의 하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미래 농업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 분야가 다르더라도 스마트농업이나 AI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많은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 이어령(가운데) 전 장관과 디지털로그 팀



▲ 대회 본선 현장의 디지털로그 팀



◀ 김동영 (중국어학과 1)

▼ 김소영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 김현선 (글로벌비즈니스학과 1)

▼ 오예빈 (고고미술사학과 1)

‘비대면’의 대학 첫 학기, 슬기롭게 ‘대면’하다

뉴 노멀 세대 20학번 새내기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캠퍼스의 풋풋한 낭만을 꿈꾸며 힘든 입시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대학 새내기들에게는 더 큰 혼란이었다. 하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알차게 대학 첫 해를 보내고 있는 4명의 신입생을 만나봤다.

비대면 수업, 아쉽지만 장점도 있어

입학 전부터 학교 홍보 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자연스럽게 동아대 홍보대사 ‘에그리나’ 25기가 된 김동영(중국어학과 1) 학생은 캠퍼스에 자주 오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집이 제주도라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면서 기대가 아주 컸거든요. 그런데 입학식도 취소되고 5월에는 1학기 전체 비대면 수업이 결정돼서 좀 충격이었죠.”
 중학교 시절 부산을 여행하며 호감을 갖게 돼 동아대 진학까지 했다는 김동영 학생은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할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했다. 시험 대신에 장문의 리포트를 작성하고, 일반 시험보다 더 긴장되는 교수님과의 일대일 화상 시험을 치러야 했기 때문이다.

동아대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다메이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영(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 오예빈(고고미술사학과 1), 김현선(글로벌비즈니스학과 1) 학생도 “이번 학기에 교수님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장점은 없었는지 묻자 오예빈 학생은 “충분히 개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자기 계발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은 좋았다”고 말했고, 김현선 학생은 “원하는 시간에 탄력적으로 강의 들을 수 있는 점은 괜찮았다”고 덧붙였다.
 네 명의 새내기들은 비대면 수업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있었다. 김소영 학생은 컴퓨터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컴퓨터 학원에서 일러스트 작업 방법을 익히는 디자인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화실에서 온라인 홍보 서포터즈 ‘다메이트’의 콘텐츠 제작 과제를 해요.”
 ‘에그리나’로 활동하는 김동영 학생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학교 입시설명회나 대외 행사에 참여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는 제주에서 완전히 떠나 부산에서 생활하기 시작하며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환경 속 교수님들의 열정에 감동

김동영 학생은 1학기 수업 중 ‘기초 중국어 연습(임춘영 교수)’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했다. “교수님께서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발음을 최대한 교정해 주려고 하셨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셨어요.”
 오예빈 학생은 ‘현대 고고학의 이해(최경규 교수)’를 인상적인 수업으로 꼽았다. “전공 교양 수업이어서 1학년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재미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현

장에 나가는 데 제약이 있어서 본인의 방이 고고학 발굴 현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던 부분이 참신하면서도 유익했어요.”
 대면 수업을 바라는 새내기들의 열망은 한결 같았다. 오예빈 학생은 “대면 수업으로 바뀌면 추계 현장 답사가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소영 학생은 전공인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관련 책을 들고 동기들과 함께 캠퍼스를 걷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밝혔다.

갓 대학에 입학한 그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

글로벌비즈니스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현선 학생은 “아직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지만 금융 분야로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은 대학 생활을 통해 더 다양한 길을 탐색하고 적성에 꼭 맞는 분야를 발견하고 싶다고 했다.
 김소영 학생은 방송·광고 분야로 진출하기를 원했다. “다양한 콘텐츠로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재미, 감동을 전하는 소통의 중심에 서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동영 학생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국제무역사’를 꿈꾸어 왔다고 했다. 전공인 중국어학을 살려 우리나라-중국의 경제 협력 부문에서 오작교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오예빈 학생은 “시청의 문화 관련 부서, 문화재청에 취업하거나 박물관의 학예연구사 등으로 진출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남은 학기 동안 우리 문화유산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독자성과 가치를 바르게 인지하는 자질과 경험을 쌓아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소중한 손길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마음,
동아의 기쁨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어린 손길이 동아를 크게 키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랑이 되어 곳곳에 스며든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고통 나누기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동아대학교가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했다. 동아대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는 (사)한국창업보육협회와 협의해 3월부터 5월까지 교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보육료의 20%를 인하했다. 이는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나누기 위해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정책이다. 이와 함께, 캠퍼스 내 임대 매장에도 임대료 감면을 시행했다. 승학·부민캠퍼스 내 시설을 임대해 영업 중인 점포의 3~4월분 임대료를 전액 면제했고 5~8월 발생분에 대해서는 70%를 감액했다. 관리과 관계자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내 임대매장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손 세정제 기부 잇따라

동아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과 경영대학원 MBA 원우가 학교 구성원과 동문들을 위해 써달라며 손 세정제를 기부했다. 화장품 전문기업 '미꾸뽀'는 휴대용 손 세정제 500개를 기부했다. 이에 앞서 미꾸뽀는 동아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손 세정제를 납품했으며 경찰서, 복지관 등 지역기관에 기부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경영대학원 MBA(경영학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문금자 원우도 휴대용 손 세정제 1,050개를 대학원에 기부했다. 경영대학원은 손 세정제를 개별 포장해 재학생과 동문 등에게 발송했다. 대외협력처는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100여 개 업체에 손 세정제 세트를 전달했다. '후원의 집'은 대학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발전기금을 기부하고 있는 음식점, 병원 등이다.



교내 기관들
'덕분에 챌린지' 동참

동아대 각 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SNS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감동을 줬다. '덕분에 챌린지'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존경'과 '자부심'을 의미하는 수어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LINC+(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단이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의 첫 신호탄을 올렸다. LINC+사업단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솔로몬로파크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어 6월에는 석당박물관과 도서관 구성원들이 각각 현진권 국회도서관장과 영남대 도서관 지목으로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해 감동을 이어갔다.



**취업지원 선순환 시스템 모범
후배사랑 취업교육기금 5억 원 돌파**

동아대 후배사랑 취업교육기금이 누적 모금액 5억 원을 돌파했다. 2010년 7월부터 시작한 이 기금은 전국 대학에서 유일하게 선배들이 후배들의 취업을 위해 매월 1~2만 원씩 정기 기부하는 형태로 '선순환 취업지원 시스템'의 토대가 되고 있다. 취업교육기금은 지난해 12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에서 취업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2019년 부산권 대학별 특화사업 운영 워크숍'에서 취·창업 관련 특화사업 최우수상을 수상기도 했다. 이는 학교 내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 지난해부터 창업지원단이 '창업교육기금'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동문 및 교수 기부로
로스쿨 열람실 교강사휴게실 조성**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동문 및 교수들의 기부금으로 학생열람실 '항심실(恒心室)'과 교강사휴게실 '근인호학지실(近仁好學之室)'을 조성했다.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건물 2층, 5층에 각각 자리 잡은 항심실과 근인호학지실은 졸업생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이 합심해 만든 공간이라는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항심실에는 법학부 03학번 박주영 변호사가 1,000만 원 상당의 책상·의자를, 정해영 겸임교수가 100만 원 상당의 LED 스탠드 등을 기부했다. 근인호학지실에는 최 원장과 동문 심민영 작가가 미술 작품을, 하태영 교수가 전자 제품을 기부했다. 또 동문 김창오·류영필 변호사가 화분 등의 비품을 준비해 아늑한 공간을 만들었다.



**직원봉사대·링크플러스 사업단
생명나눔 헌혈캠페인 펼쳐**

동아대 직원봉사대와 LINC+사업단이 헌혈캠페인에 동참해 온기를 더했다. 동아대 직원봉사대는 지난 3월 '생명나눔 헌혈캠페인' 봉사활동을 진행해 이날 20여 명의 직원이 헌혈에 참여했다. 직원봉사대는 지난해에도 헌혈캠페인을 펼쳐 직원들이 캠퍼스 인근 헌혈의 집에 방문하도록 독려했다. 지난 6월 29일에는 동아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부족한 혈액 수급에 보탬이 되고자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지원으로 승학캠퍼스 공대2호관 앞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김점수 단장을 비롯한 LINC+사업단 관계자, LINC+사업 참여 학과 학생과 교직원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헌혈 참여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체열 전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장복만 (주)동원개발 회장
발전기금 5억 원 기부**

장복만 (주)동원개발 회장이 개교 100주년 대비 학교 사랑 캠페인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5억 원을 기부했다. 지난 7월 28일 장 회장의 장남 장호익 동원개발 사장이 부민캠퍼스를 방문해 기금을 전달했다. 지난 1969년 동아대 법학과에 입학했던 장복만 회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했다. 모교 동아대는 48년 만인 지난 2017년 장 회장에게 명예법학사 학위를, 지난해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해 화제가 됐다. 장호익 사장은 "사회 공헌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철학을 가진 아버지의 가르침을 물려받아 지역사회 기여에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상천 삼성E&C 대표이사
발전기금 1억 원 기부**

박상천 삼성E&C 대표이사가 지난 7월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억 원을 기부했다. 동아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열린 '동아 100년 동행, 감사와 전진의 밤' 행사에 부친인 박정오 (주)삼성기업 회장과 동반 참석한 바 있다. 박 대표는 "학교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힘을 결집하는 좋은 취지의 행사에 참석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앞으로 모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살피고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친화형 아파트 브랜드 '삼성그린코아'로 유명한 종합건설회사 삼성기업 전무와 학교법인 삼성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이미근 제47대 AMP 총동문회장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이미근 AMP(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 신임 회장(주)정우엠타워·정우마트 전무이사)이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27일 롯데호텔부산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동문회 2020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AMP 52기로 이날 제47대 동문회장에 취임한 이 신임 회장은 "함께여서 좋은, 같이여서 행복한'이란 슬로건으로 동문 간 소통 및 유대 강화에 힘쓰고 학교 발전과 총동문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운 명예교수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최상운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26년간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지난 2005년 정년퇴임한 최 명예교수는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문인·문학지망생·교양인을 위한) 순우리말사전』 저자이기도 하다. 최 명예교수는 "늦은 나이에 학교를 졸업하고 제자를 키워내며 평생 몸담은 모교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저서가 예상 외로 큰 인기를 얻어 그동안 신세를 많이 진 모교에 기부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경영대학 릴레이 기부



신정택 세운철강(주) 회장 경영대학 발전기금 25호 기부

동아대 경영대학 발전과 교육혁신을 위한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25호 주자로 신정택 세운철강 회장이 5,000만 원을 쾌척했다. 제35대 동아대 총동문회장인 신 회장은 지난 6월 29일 학교를 방문해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신 회장은 이날 “지역의 대표 사학인 동아대 경영대학의 발전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9~20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신 회장은 2015년부터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맡고 있으며 사회, 교육, 스포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100억 원 이상을 기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다. 신 회장은 모교에도 지금까지 9억 원 가까이 기부했다.



이승규·윤종관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26-27호 기부

이승규 성심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윤종관 천호하이테크(주) 대표이사는 지난 5월 8일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26-27호로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했다.

AMP(최고경영자과정) 53기로 함께 경영대학원을 다닌 이 대표와 윤 대표는 이날 AMP 총동문회 동문들과 함께 총장실을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AMP 53기 원우회장을 지내고 총동문회 수석부회장도 맡고 있는 이승규 대표는 “경영대학 로비에 있는 고액 릴레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기부 문화 확산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기부금이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체 설비·부품 생산 기업 천호하이테크(주)를 운영하며 부품 국산화에 기여해온 윤종관 대표는 “학교 발전과 훌륭한 인재 양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필호 ㈜대림기공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28호 기부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28호로 하필호 (주)대림기공 대표이사가 1,000만 원을 기부했다. 하 대표는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40기로, 부산 녹산공단에서 (주)대림기공을 운영하며 가스분야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를 선도하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동아대 부민캠퍼스 총장실에서 열린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하 대표는 “AMP 동기들을 비롯한 많은 동문이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후배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고 싶어 기부했다”고 말했다.

경영대학 릴레이 기부



정석봉 (주)참코청하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29호 기부

‘다우이스트 기프트 고액 릴레이 기부’ 제29호 주자로 정석봉 (주)참코청하 대표이사가 지난 6월 3일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경영대학원 석사(MBA) 44기로 올해 MBA 총동문회 상임부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정 대표는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쓰여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가 운영하는 (주)참코청하는 부산 강서구 생곡산단에 위치한 식품가공기계 제조사로 지난 1995년 수산물가공기계 제조회사로 출발, 자체 연구진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30여 개의 특허와 다수의 국제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50여 종의 식품가공기계를 개발했다.



박용희·박수만 대표 경영대학 발전기금 30-31호 기부

박용희 (주)컴솔텍 대표이사와 박수만 용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가 지난 6월 29일 각각 1,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는 ‘다우이스트 기프트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의 제30호, 제31호이다.

IT컨설팅 전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용희 대표는 경영대학원 AMP(최고경영자과정) 54기에 재학 중이며 그간 틈틈이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해왔다. 그는 “교육혁신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발전기금이 잘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학도로 동아대 경영학과를 졸업 후 현재 경영대학원 MBA(석사) 52기 재학 중인 박수만 대표는 “늦은 나이에 학교에 입학해 공부해보니 세월이 더 잘 간다”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여건에서 공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서진 (주)블라디보스톡 골프&리조트 이사 경영대학 발전기금 32호 기부

‘다우이스트 기프트’ 발전기금 릴레이 기부 제32호 주자로 유서진 (주)블라디보스톡 골프&리조트 이사가 7월 22일 학교를 방문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40기로 동아대와 인연을 맺은 유 이사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시국에 교육을 위해 잘 쓰여 학생들이 지역사회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에 본사를 둔 (주)블라디보스톡 골프&리조트/(주)웨미리(대표 정일수)는 지난 30년간 골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골프 문화 발전을 선도해왔다. 떠오르는 관광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최초로 지어질 골프장 건설과 운영을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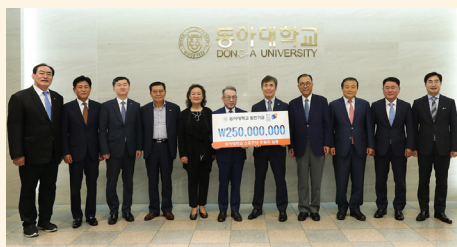
**제정부 전 석좌교수
로스쿨 발전기금 5,000만 원 기부**

제정부 법학전문대학원 전 석좌교수가 로스쿨 발전기금 5,000만 원을 쾌척했다. 제 석좌교수가 지금까지 모교에 기부한 금액은 1억 원에 이른다. 동아대 법대 출신인 제 석좌교수는 제31대 법제처장을 지낸 후 지난 2017년 9월부터 3년간 강단에 서며 모교 로스쿨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을 보탰다. 그는 35년간의 공직생활 동안 정부 입법 총괄·조정 등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와 대통령 법률비서실 등에 몸담으며 법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 ‘법제의 달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제 석좌교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과 교육환경 개선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엄전중 세무법인 송림 대표세무사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 기부**

엄전중 세무법인 송림 대표세무사가 로스쿨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만학도로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모교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기도 한 엄 대표세무사는 지난 6월 25일 스승인 최우용 법학전문대학원장과 함께 학교를 찾아 기금을 전달했다. 그는 “동아대 법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늘 갖고 살았기 때문에 모교에 힘을 보태는 발전기금 기부가 마치 숙제를 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엄 대표세무사는 38년간 국가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북부산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등을 역임했고, 국세공무원들이 뽑은 ‘젊은 관리자상’과 정부 홍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



**스포츠단 후원회
발전기금 2억 5,000만 원 약정**

동아대는 지난 6월 16일 승학캠퍼스 총장실에서 스포츠단 후원회(회장 강 의구 주부산영사단장) 발전기금 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정식에는 하형주 전 스포츠단장(전 예술체육대학장, 1984 LA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과 강 후원회장 등이 참석해, 향후 해마다 대학 스포츠 발전과 우수 선수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2억 5,000만 원을 기부키로 했다. 하 전 학장 주도로 올해 초 창립된 동아대 스포츠단 후원회는 ‘동아 체육’의 전통 계승과 선수 역량 강화를 위해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권익보·정석봉·홍철우·윤경로 MBA 동문
발전기금 2,000만 원 기부**

‘경영대학원 석사(MBA) 총동문회 제23회 정기총회 및 2020년 회장 이·취임식’이 6월 3일 롯데호텔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렸다. 500여 명의 학교 관계자 및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강호철(42기, ㈜부원테크 대표이사)이 제24대 동아대 MBA 총동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자랑스러운 경영인상’과 ‘자랑스러운 동문인상’을 수상한 권익보(43기, ㈜부남델코 대표이사)·정석봉(44기, ㈜참코청하 대표이사)·홍철우(51기, ㈜대한금속 대표이사)·윤경로(51기, 두성풍력기계 대표)가 각각 5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을 동아대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고액기부자 기념 벽체 새 단장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품격 한층 높여**

동아대는 승학캠퍼스 대학본부 2층 로비에 마련된 고액 발전기금 기부자 기념 벽체 ‘동아대학교 명예의 전당’을 새롭게 단장했다. 명예의 전당에는 모교에 150억 원을 기탁해 프레지던트 클럽(President’s Club, 100억 원 이상)에 이름을 올린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을 비롯, 김재진 경동건설 대표이사·김만수 동아타이어공업 회장(다이아몬드 클럽, Diamond Club, 30억 원 이상) 등 얼굴이 고급 동판에 새겨져 천연대리석 벽면에 자리 잡았다.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100억 원 이상 기부자 1명, 30억 원 이상 기부자가 5명(단체 포함) 생기는 등 100여 명의 등재 대상자가 추가돼 모두 600여 명의 개인 및 단체가 이곳에 등재됐다.



**김창대 영풍조경 대표
소나무 40주 기증**

김창대 영풍조경 대표가 학교에 소나무 40주를 기증, 동아대 승학캠퍼스 뉴턴의 사과나무 공원에 이식(移植)이 완료됐다. 동아대는 김 대표가 기증한 소나무를 심은 뉴턴 공원에 ‘동좌문도(同坐問道)’란 글귀를 새긴 표지석을 설치해 의미를 더했다. ‘동좌문도’는 동아대 설립자인 석당 정재환 선생이 직접 지은 문구로,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누구나 함께 자리해 서로 이치를 묻고 답하며 공부한다’란 뜻을 가진 교육 철학이다. 김 대표는 “하형주 교수와 오랜 친분으로 소나무를 기증하게 됐다”며 “기존에 활엽수가 많아 겨울에 낙엽이 지면 황량해졌던 승학캠퍼스 뉴턴 공원에 사계절 푸른 소나무가 심겨 학교 구성원들에게 시각적·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ppy Donation

기부로 밝아지는 동아대학교의 미래

발전기금 기부현황(2020년 1월~2020년 7월)

단체

Table with 2 columns: Donor Name, Donor Address. Lists various organizations like (재)BNK금융그룹희망나눔재단, (재)농협재단, (재)동아대학교 동문장학회, etc.

후원의 집

Table with 4 columns: Donor Name, Donor Address, Donor Address, Donor Name. Lists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ir donation locations.

개인

Large table with 4 columns: Donor Name, Donor Address, Donor Name, Donor Address. Lists numerous individual donors and their donation details.

Issue Focus, Hot News, Dong-A People, Happy Donation, 특별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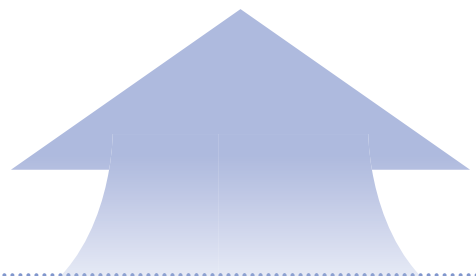
Large table with 4 columns: Donor Name, Donor Address, Donor Name, Donor Address. Lists donors in a grid format.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 '미래교육관(동문관) 건립' 등을 대학 경쟁력 강화 목표로 설정, 교직원·학생·동문 등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속과 참여로 펼쳐지는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전통 동아의 명성 재확보 및 지역을 품고 세계와 함께하는 명문 사학으로의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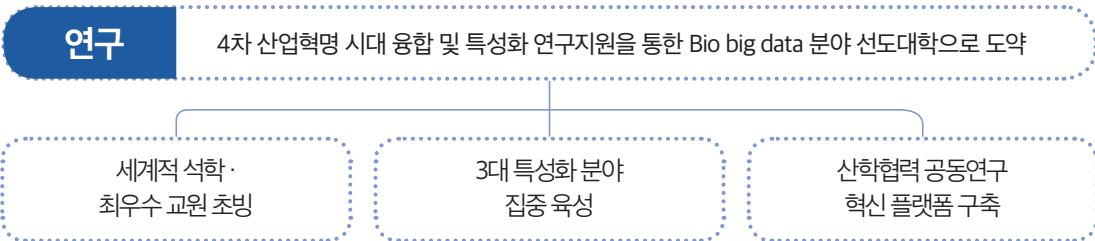


캠페인 1단계 목표

<p>완료</p> <p>동아 교육 혁신</p> <p>동아 젠틀맨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형 교양교육과정 개설을 통한 동아 젠틀맨 양성 • 융합형 전공교육과정 신설 • 미래형 스마트 러닝 시스템 구축 	<p>완료</p> <p>교육인프라 구축</p> <p>미래교육관 건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교육 전용 공간 마련 • 동문 명예의 전당 조성 • 지역과 문화 인프라를 공유하는 지식의 허브이자 동아의 랜드마크 구축 	<p>추진</p> <p>연구</p> <p>우수 교원 확보 연구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석학 교수 및 최우수 교원 초빙 • 3대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 산학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
---	---	---

동아 100년 동행, 이제 미래를 향해 전진합니다.

지난 시간 동아는 미래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 양성의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묵묵히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교원들을 영입하고 연구에 집중 투자해 동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캠페인 기부참여 안내

- 무통장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 온라인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받은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ttp://fund.donga.ac.kr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가입 시 혜택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연말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교내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매년 명절 쌀·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발송
본교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홍보 | 발전기금 홈페이지 '후원의 집'에 등재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 홍보
전체 교·직원 대상 홍보메일 발송

신규 후원의 집 소개

제187호
장시영살롱드뷰티
장시영살롱드뷰티는 승학캠퍼스 앞에 위치한 토탈 뷰티샵입니다. 우리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뷰티샵으로 헤어, 메이크업, 네일, 왁싱, 속눈썹 등 고품격 뷰티 시술을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36번길 8 ☎ 051-203-8004

제190호
콩볼 동아대점
승학캠퍼스 입구에 위치한 콩볼 동아대점은 10여 년간 학생들의 사랑을 받아온 맛집입니다. 특허받은 흑마늘 콩나물과 불고기의 환상적인 조화로 건강과 행복한 맛을 느껴보십시오.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516번길 55 ☎ 051-904-2211

제188호
여명여행(모두투어)
여명여행은 우리 대학 동문이 직접 운영하는 모두투어 공식예약센터입니다. 해외여행 뿐 아니라 국내여행, 골프여행, 크루즈 등 개인별 맞춤형 여행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부산 사하구 다대로 435, 4층 ☎ 051-266-0234

제191호
소담
구덕 꽃마을에 위치한 소담은 오리요리와 곤드레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식당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구덕산 등산에 소담의 건강한 요리와 함께하세요.
☎ 부산 서구 엄광산로39번길 18-3 ☎ 051-254-1022

제189호
굿치과의원
환자를 먼저 생각하여 정성을 다하는 치과. 당리역 4번출구 앞에 위치한 굿치과의원은 정확한 진단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진료를 제공합니다.
☎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7 ☎ 051-203-2828

제192호
우송정
우수한 품질의 암소한우만을 취급하는 한우 전문점입니다. 고소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암소한우구이에 정갈한 음식은 가족외식은 물론 회식에도 적합합니다.
☎ 부산 사하구 제석로18번길 75 ☎ 051-202-5570

가입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E-mail : fund@dau.ac.kr Homepage : http://fund.donga.ac.kr
※ 전화 문의 또는 가입신청서 작성 후 우편이나 FAX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기부안내

동아의 74년, 20만 동문의 기부로 100년의 역사를 향해 도약합니다.

동아사랑 1인 1계좌 참여운동



'동아사랑 1인 1계좌'는 매월 소액(1만 원)으로 동아 발전의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 1계좌당 1만 원이 기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계좌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네이밍 도네이션



우리 대학의 건물, 강의실, 연구실, 실습실 등에 기부자들의 아호를 명명해 새기고 있습니다. 동아의 역사와 함께할 뜻 깊은 기부를 기다립니다.

장학기금 및 기타 목적기금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기부목적용 장학기금, 학과 발전기금 등으로 지정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 기부 시 기부금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기부 방법

무통장 입금 계좌로 직접 입금하신 후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부산은행 029-01-027228-1 농협중앙회 944-17-004326 국민은행 118201-04-168318

방문 납부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대외협력처(본부건물 3층)로 내방하셔서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공제 교직원에 한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CMS 납부 CMS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 방법

약정 신청 전화 혹은 방문해주시면 발전기금 약정과 납부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약정은 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받은 약정서에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omepage http://fund.donga.ac.kr

우편 우)493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대학본부 3층 313호)

변화와 혁신의 바다를 넘은 4년의 항해

지난 7월 말 임기를 마친 한석정 전 총장은 이임식 대신 동영상 메시지로 구성원들에게 인사를 남겼다.

한 총장은 “업무 수행이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지만 묵묵히 열심히 달렸다. 구성원 여러분의 성원이 없었다면 결코 완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동아호를 하선하지만 여전히 동아맨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동아인에겐 위기에 더욱 힘을 발휘하는 특유의 DNA가 있다”며 “새로 동아호를 이끌어 갈 신임 총장님과 집행부에 응원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 총장은 임기 동안 ‘동아문화 창달을 위한 학교 역사 발굴’과 ‘교육중심대학을 위한 학제개편 및 교육개혁’,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을 통한 역대 최고 발전기금 유치 등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아와 함께한 한석정 총장의 4년의 항해, 그 기록을 ‘키워드’로 둘러봤다.



▲ 2016년 취임식 연설



▲ '동아 100년 동행' 캠페인 발전위원회 발족식





▲ 토크 콘서트 후 학생들과 소통하는 한 총장



▲ '함께 뛰자 동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한 총장

‘소통’으로 첫 장을 엿다

한 총장은 임기 초반부터 학생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왔다. 2016년 2학기 개강 첫날 등교하는 학생들을 직접 맞이해 악수와 격려의 말을 전하며 ‘셀카’를 찍기도 하고, 학생들이 건의사항을 적는 소원함 행사를 실시했다. 임기 중 총 3번의 토크 콘서트로 학생들과 마주했다. 2017년 4월 ‘실패의 미학’, 2018년 5월 ‘나눔의 힘’, 2019년 12월 ‘융합적 인재’를 주제로 지덕체, 기부, 봉사, 환경보호 의식, 융합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매년 가을 야구 동아리 대회에 참석해 시타를 했고, 총학생회 간부와의 간담회, 동남아지역 유학생 간담회도 가졌으며 각종 대회에서 학교를 빛낸 학생들을 총장실로 초대해 격려하기도 했다. 특히 매년 개교기념일 즈음 열린 마라톤 대회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동문, 지역민을 하나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동아 100년 동행’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중국, 동남아의 해외 동문을 만나 소통함과 동시에 동아의 저력을 재각인시켰다.



▲ 태권도시범단 학생들과 함께 한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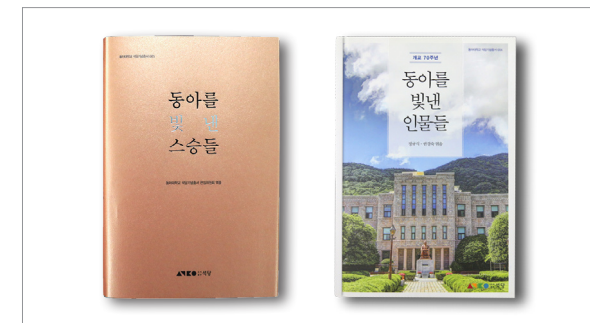
‘교육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

한 총장이 가장 고민한 부분은 교육중심대학을 위한 교육혁신이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대처만이 지속가능한 길이라는 판단 하에 중장기 발전계획과 ‘BEYOND 교육혁신 전략’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우선 기존의 학사제도, 교육과정, 교육방법, 학생지원 및 인프라 등 5대 영역에 과감하게 혁신의 메스를 댔다. 사회적 수요 대응을 기준으로 학제를 개편했고, 종합 교양인 ‘동아 젠틀맨’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했다. ‘무도와 인성(2017)’, ‘봉사와 헌신(2018)’, ‘인간과 환경의 이해(2019)’를 개설하고 ‘코딩’ 교과목 등 다양한 토대 교양 과목을 운영했다. 다른 전공 교수들의 ‘합동 강의’(Co-teaching)를 통해 교양교육의 융합을 이끌었다. 기초 교양교육을 향한 한 총장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로 동아대는 ‘2018년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 우수 개선 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그의 교육철학에 기반을 둔 ‘교양교육 학생평가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받기도 했다.

교육혁신의 성과는 곧 재학생의 교육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정기 실태조사와 교육수요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교육의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에 개설한 교육성과관리센터를 통해 핵심역량기반의 교과-비교과 운영체계를 표준화, 통합적 성과측정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동아핵심역량진단도구(D-CODA)를 개발해 자가진단을 통한 역량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질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학교 역사 발굴 통한 ‘동아문화 창달’

한 총장이 취임 직후부터 주력한 것은 정계, 재계, 법조계, 체육문화계의 거물들을 배출한 동아대의 저력과 유전자를 찾는, 동아의 재발견이었다. 한 총장은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동아문화 창달’의 이름으로 학교 역사를 발굴하는 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학이 있게 한 인물들을 발굴·조명한 『동아를 빛낸 인물들』(2016년)과 『동아를 빛낸 스승들』(2019년) 시리즈를 편찬했다. 한국 현대사의 최고봉 오규원 동문의 10주기 학회도 개최했다.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사학에 잠재된 저력이 있는 만큼 한 총장은 이를 심분 활용했다. 바로 ‘동아 100년 동행’을 통해 동문들의 힘을 이끌어 낸 것이다. 한 총장 임기 동안 이뤄진 동문들의 기부도 이렇게 동아의 긍지를 선양한 성과라 할 수 있다.



▲ 초창기 은사를 소개하는 ‘동아를 빛낸 스승들’, 학교를 알린 동아인의 스토리 ‘동아를 빛낸 인물들’

‘동아 100년 동행’ 통한 역대 최고 발전기금 유치

한 총장의 업적 가운데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개교 100주년 대비 학교사랑 캠페인 ‘동아 100년 동행’을 통한 동문 파워 결집과 역대 최고 발전기금 유치다.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의 150억 원을 포함, 재임 동안 발전기금 약정액은 약 301억 원, 납입액은 215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취임 전 40위권 밖이었던 대학 기부금 순위를 10위권 내로 끌어 올렸다. 동문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동아 100년 동행’이 출범, 1차 모금액은 학생들의 교양교육 전용시설인 미래교육관(가칭)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의 대표적 건축가인 승효상 동아대 건축학과 석좌교수가 설계를 맡은 이 건물은 동아대 최초의 동문관이자 신입생 대상 교양교육 전용 강의시설로서 ‘동아 미래인 양성’과 ‘동아 지식허브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2차 모금액은 동아대의 강점인 생명과학·건강과학·의학·체육학 등을 결집한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에 투자된다.



▲ 넥센그룹 강병중 회장의 150억 원 기부금 약정



▲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결과

대학 '재정건전성' 향상

재정 악화는 곧 교육 환경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총장은 재정 수익에 다방면으로 힘썼다.

한 총장은 매년 감소하는 등록금 수입을 극복하고자 예산 편성·집행 시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총액예산제' 도입, 대외활동을 통한 발전기금 유치,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수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 수입 다각화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이뤘다.

이에 따라 학교 부채가 2016년에 비해 약 76억 원 감소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에 대비했다.

특히 한 총장 임기 동안 동아대는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과 대학 산학연 연구단지(URP) 조성사업, 초기창업패키지사업,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2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시범(PILOT)사업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 등 대형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을 휩쓸며 저력을 과시했다.



▲ 한 총장 재임 시절 언론 보도

4차 산업 인재 양성의 기틀을 다지다

한 총장 임기 중이었던 지난해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에 선정된 동아대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가 되고 있다.

동아대는 이 사업으로 3년간 30억 원을 지원받아 '수요자 데이터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스마트헬스케어 융합전공'도 신설, 경영정보학과를 중심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식품영양학과·의약생명공학과·건강관리학과 중심의 헬스케어 등 학문 간 경계를 넘는 교육 혁신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엔 '부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MOU)을 부산광역시-(재)부산테크노파크·사하구와 체결, 세계 최초 5G 기반 '드론 글로벌 허브센터'가 동아대 승학캠퍼스에 들어설 예정이다.

동아대는 또 지난해 지역 대학 중 처음으로 '첨단 통합 미래링 시스템'을 갖춘 협력형 강의실을 도입하고 이를 매년 추가 구축해 코티칭(Co-teaching, 교수 여러 명이 함께 수업), PBL(Problem 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온라인 선행학습 뒤 토론식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역진행 수업 방식) 등 융합교육과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 진행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AI) 분야 등 미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대대적인 학제개편도 단행, AI학과도 신설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 영어 트랙 융합경영학과도 만들어진다.



▲ 2019년 11월 베트남 두이탄 대학과 학술 교류 협정

글로벌 동아, '동남아시아'를 품다

한 총장은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 범아시아로 국제교류 영역을 개척했다.

그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중국 대학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에서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쳤다. 또 국가별 대학 총장단을 초청해 교류협정을 맺었다. 그 성과의 하나로 동아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545명(33개국, 2016년 1학기 기준)에서 1,061명(2019년 2학기)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학교의 재정 수입 측면뿐만 아니라 동아인들의 세계를 향한 관심을 높였다.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과 소통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우수 유학생 유치로 질적 관리에 신경을 썼다.

지난해엔 모하마드 리드완 카밀(Mochamad Ridwan Kamil)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주지사에게 명예행정학박사 학위를 수여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류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할랄문화센터와 이슬람문화실도 부민캠퍼스에 설치됐다.



▲ 2017년 5월 인도네시아 유학생 간담회

베트남 두이탄대학교와는 지난 2017년 협정 체결 이후 교환 학생 파견과 초청, 관광경영학과 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파견 등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으며 동아대 관광경영학과 석사과정을 두이탄대에 개설하기도 했다.

또 중국에서는 지난 2017년 '재중 동아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동문회'가 창립돼 중국인 졸업생들이 각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을 잇는 역할을 하고 동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의 중국 교류 활동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4년간 격정적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한석성 총장은 졸업 학생들이 지덕체와 환경의식, 봉사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훗날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아 젠틀맨'이 되기를 바랐다.

그의 바람대로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동아 젠틀맨들이 동아와 함께 100년의 동행을 이제 막 준비 중이다. 한 총장이 지난 4년간 양성한 인재들의 활약은 이제 시작이다.



▲ 동아 100년 동행 감사와 전진의 밤 행사 개최